

제주지역 농촌관광 활성화 방향 : 지역주민의 의식조사사례를 중심으로

Strategy for Rural Tourism in Jeju : Focused on Case Study of Local Community Perspectives

오 상 훈* · 강 성 일** · 양 필 수***

(Oh, Sang-Hoon · Kang, Sung-Il · Yang, Pil-Soo)

목 차

- I. 서 론
- II. 농촌관광에 대한 고찰
- III. 농촌지역 주민의식 조사
- IV. 농촌관광 활성화방안
- V. 결 론

I. 서 론

최근 들어 농업과 농촌의 역할과 비전, 국토공간상에서 농촌지역의 위치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WTO체제의 출범과 DDA 협상결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 농가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농업의 급속한 쇠퇴와 도·농간의 소득 격차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소득 증가, 주5일제 근무, 정보화의 진전 등 생활패턴의 다양화와 함께 농촌의 쾌적함과 농촌다움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 증가 등 가치관의 변화는 농촌지역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농촌관광(rural tourism)은 이 같은 농촌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고려된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촉발된 관광공간으로서의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은 환경 친화적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녹색관광(green tourism), 즉 농촌지역의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관광매력물(tourism attraction)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그린=환경'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는 관광'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물론 농촌 관광이 환경 친화적인 관광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틀리지는 않다. 문제는 농촌관광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하고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농촌이 단순한 농업생산 공간이나 환경과 경관 유지공간의 차원을 넘어 생활공간이며 전통 자원과 문화 보존 공간, 여가 공간, 어메니티(amenity) 창출 공간과 같은 복합적 기능공간으로 보는 견해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적 의미의 농촌관광은 농촌의 생활, 문화, 그리고 자연자원을 포함한 각종 자원을 도시와 농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야마자키 미쓰히로·오야마 요시히코·오오시마 준코, 1997).

한편, 농촌관광개발은 타 관광개발과 달리 농촌이라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농촌사회의 라이프사이클과 동질성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확인된 요구를 개발과정에 투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내농촌관광개발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통한 내발적 개발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농촌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추진과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개발주체의 일방적인 개발과 정보전달의 부족, 상호협의를 할 수 있는 참여범위 및 방법의 부족으로 개발과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농촌관광의 최근 추세는 지역주민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쉽지 않은 섬이라는 점과 국내의 대표적 관광지이며 사실상 도농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다. 즉, 육지의 전형적 농촌관광 패러다임의 단순적용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관광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있어 농촌이란 지역공간을 농업생산이나 관광공간으로 고려하기보다 입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농촌공간을 규정짓는 주요 시각인 관광적 측면보다는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식을 사례지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제주형 농촌관광의 발전적 정책방향과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농촌관광에 대한 고찰

2.1. 농촌관광의 개념

농촌관광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초기에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활동이라는 정의에서 농촌지역의 역사와 사회문화, 체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농촌관광은 개념상으로 농업관광(agri-tourism)과 녹색관광, 생태관광(eco-tourism) 등과 개념이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관광이 농가·농장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판매나 농사체험활동을 하게하는 관광, 녹색관광이 전원에서의 친환경적 관광을 의미하는 반면, 농촌관광은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을 무대로 전개되는 관광’이란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OECD, 1994). 즉, 농촌관광은 농촌이라는 장소적 특성(rurality)과 농촌지역의 문화나 생활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농업·농업생산물을 강조하는 농업관광과 다르며, 친환경성이 보다 강조되는 녹색관광과 다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녹색관광은 농·산·어촌 지역의 종합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인식되며,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에 의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해 도·농 교류를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본다는 결국 녹색관광은 농촌관광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강신겸, 2007). 즉, 농촌은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과 같은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새로운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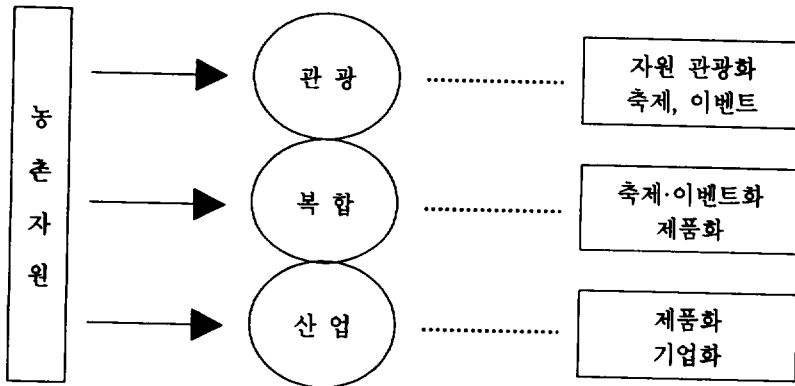
이처럼 농촌관광은 단순히 농촌의 자연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농촌체험활동이라기 보다는 관광활동, 관광상품, 농촌 활성화수단 등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파악된다.

2.2. 농촌관광의 특징

전통적으로 농촌이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농민)들이 모여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지리적 공간이자, “농업이란 생업에 의존하면서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에 의해 조직되고 통합된 하나의 마을 공동체, 또는 지역 공동체”를 의미한다(최양부·이정환 1987). 따라서 농촌관광의 숙박시설, 식사제공, 오락활동, 특산품판매, 휴양 등 일반적 관광에서의 요소들을 포함되어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농촌주민들이다(박덕령·이혜천, 2004). 한편 농촌마을 개

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농촌개발사업과 달리 농촌관광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관광 상품이나 농촌관광 프로세스가 지역(또는 마을)의 환경특성을 반영되어 다양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림 1> 농촌자원의 활용형태



자료: 김현호·한표환(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농촌관광은 농촌다움을 지탱하는 자연과 문화, 전통, 체험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이다. 따라서 농촌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도시적이고, 대중적인 대규모 리조트 휴양, 대중숙박업소에서의 숙박 등은 농촌관광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업은 농촌의 주산업인 농업을 통한 체험활동이나 농산물 판매, 체험활동과 관련한 소규모 민박 등이 토대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2.3. 농촌관광개발 현황과 문제점

2.3.1. 국내 농촌관광개발 현황

국내의 농촌관광은 관광적 측면보다는 농정의 한 대안으로 고려된다(송미령·성주인, 2005). 증가하는 도시의 관광객을 농촌지역의 쾌적한 전원형 휴식공간에 유치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관광농업정책의 도입은 1984년부터이다.

관광농업정책은 농어촌발전특별법(1990)과 농어촌정비법(1994), 농어촌휴양단지개발정책(1999)을 통하여 농촌관광으로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농촌지역의 유희자원을 휴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했다.

그러나 그 경제적 효과 즉, 농외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정기환, 2001). 그 원인으로는 물리적 개발치중, 주체양성 미흡, 소득사업과 괴리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도 이후 정부는 마을 단위로 농촌관광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부터 마을 단위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면서 중요한 농촌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농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문화마을을, 행정자치부는 아름마을, 해양수산부는 어촌휴양단지와 어촌체험마을, 환경부는 생태마을, 문화관광부는 문화역사마을, 문화재관리청은 전통민속마을 등 다양한 특색을 보이면서 농촌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농협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마을 단위의 농촌관광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농촌테마마을 지원사업과 농협의 팜스테이사업 등이 그 예이다(조규호, 2006).

<표 1>은 지금까지의 국내 농촌관광개발이 중앙정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주로 의존함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사업내용도 정주기반구축이나 낙후지역개발, 정주기반 소득창출 등에 치중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농촌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반성,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맞물려 단순히 농촌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보다 마을단위 농촌 지역개발 정책적 특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표 1>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주요내용

구분	소득창출	도농교류	관광객 유치	정주기반 구축	낙후지역 개발	정주기반 소득창출	SW사업	기반시설	주민유치
신활력사업	●				●		●		
접경지역지원					●				
도서종합개발					●				
오지종합개발				●	●				
소도읍육성						●			●
개발촉진지구								●	
농촌마을종합개발						●			
산촌종합개발						●			
어촌종합개발						●			
정주기반확충				●					
전원마을조성		●							●
녹색농촌체험마을	●	●							
농촌전통테마마을	●	●							
어촌체험관광마을	●	●							
문화관광자원		●					●		
지역특화사업보조	●						●		

자료: 김현호·한표환(2005).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편 농촌관광의 목표인 도농교류를 위한 소득창출 사업의 경우 지역브랜드 강화, 매력적 대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세밀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하기 보다는 외부인을 위한 관광시설 설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업의 종류와 주관부처는 달라도 그 사업 내용은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의 종류와 사업이 어느 부처·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것인 지와는 큰 관련 없이 사업내용들은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방문객 대상 시설조성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송미령·성주인, 2005).

2.3.2. 제주지역 농촌관광개발 현황

제주도의 농촌과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아름마을', '민박마을' 등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제주도내 농촌 및 어촌도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방문객이 유명관광지위주 관람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촌관광시장에 대한 수요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관광마을 사업의 성공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며 마을 내 숙박시설인 펜션 등을 관광객을 이용하는 수준이다(제주도, 2002).

<표 2> 제주지역 농촌관광마을 지정현황

구분	마을명	위치	비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예래동 교래리	서귀포시 상예동 제주시 조천읍	마을경진대회 '우수상' 시상 마을경진대회 '장려상' 시상
	혼인지마을 장전리마을	서귀포시 성산읍 은평리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 -
농촌전통 테마마을	어명아방잔치마을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	마을경진대회 '우수상' 시상
	용왕난드르 대평마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
어촌체험마을	위미리	서귀포시 남원읍	-
아름마을	포구마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민박마을	상예동	서귀포시 상예동	마을경진대회 '우수상' 시상
	합덕리	제주시 조천읍	마을경진대회 '우수상' 시상
	색달동	서귀포시 색달동	-
	협재리	제주시 한림읍	-

도내 농촌관광이 비활성화 되는 이유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국내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단순한 모방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 육지부의 성공한 농촌마을을 경우 관광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간적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

는 지역이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많은 시간과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투자한다.

또한 이들 지역은 한국 고유의 보편적 농촌다움을 가지고 있다. 즉, 밭농사보다 논농사의 전통을 가진 곳이란 점이다. 또한 문화적 특징에 있어서도 제주의 농촌이 육지보다 방문객에게는 이질적이다. 음식문화는 그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질성이 방문객에게 신기성을 느끼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농촌관광이 농촌의 고향이미지 등 친근함과 포근함을 느끼게까지 해주는 데는 제주농촌풍경은 아무래도 낯설다.

제주에서 농촌은 관광지인 것이며, 상업화된 공간적 특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모방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제주지역 농촌의 경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3.3. 농촌관광개발의 문제점

국내에서 이루어진 농촌관광의 문제점은 우선 공급자 중심의 시설투자 위주로 정책지원이 되어 운영자에 대한 교육, 고객위주의 제도정비나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농촌 쾌적성 증진 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운영자의 사업경영기술의 부족을 초래해 사업부실로 이루어졌다. 초창기에 정부의 지원이 시설공급에 치중하여 농촌지역 고유의 장점과 매력을 자원화 하는데 소홀했고, 농촌주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지 못하거나 또는 주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영마인드가 부재하여 부실로 이어졌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을 이루지 못해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박시현·송미령, 2002).

2000년 이후 시장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농촌관광 사업자들의 수요측면을 고려하는 마케팅 활동과 탄력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촌관광 사업은 만족할만한 매출이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규호, 2006). 농촌관광도 서비스 산업인 만큼 서비스마인드, 비즈니스 노하우를 갖춘 인력육성 및 유입지원책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예전과 달리 마을 단위 지원책을 펼침으로 인해 예산 배분의 공공성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추진주체가 주인의식이 없어서 추진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을 단위 지원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다양한 부처에서의 소액 분산투자로 인해 매력적인 인프라 구축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투자가 어려워 효과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근지역과의 소득증대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를 도모하지 못하게 하여 실질적인 소득기반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송미령·김정섭, 2006).

Ⅲ. 농촌지역 주민의식 조사

3.1. 연구대상지 개관

감산리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서 동쪽으로 3km, 창천리에서 서쪽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월라봉과 대평리로 둘러싸여 있다. 일주도로변을 따라 형성된 취락은 넓은 바다와 여러 오름에 둘러 싸여져 있으며, 4계절 물이 흐르는 감산천과 안덕계곡(천연기념물 제377호로 지정되어 있는 상록수림지대가 있음)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2005년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었다. 권역 내 가구별 소득은 농업소득이 98%이상을 차지하며 감귤이 주요 작물이며, 약간의 콩 등 잡곡과 소재로 납품되는 화훼농업을 하고 있다.

대평리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남부에 위치한 마을로서, 동쪽으로는 상예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월라봉 건너 화순리가 있다. 북쪽의 일주도로변에 위치한 감산리와 약 3 km 떨어진 해안변에 위치하여 취락이 형성된 농어촌마을이다. 대평리의 경우는 어업소득이 20%이상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대평리 지역의 빼어난 경관으로 인해 점차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민박과 함께 외지에서 펜션 업을 하고자 입주하는 가계가 늘고 있어, 소득구조가 점차 다양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005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었다.

<표 3> 감산리·대평리 권역 개요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감산리, 대평리(2개리)					
마을 수	법정리	2개	행정리	2개	자연마을	4개
면적(885ha)	농경지	506ha	임야	219ha	기타	160ha
가구(568호)	농가	560호	비농가	8호	총인구: 1,509명	
지역특산물	감귤, 콩 등 발작물, 화훼(이상 감산리), 마늘, 소라, 화훼(이상 대평리)					
자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자원: 안덕계곡, 군산, 월라봉, 박수절벽, 대평포구, 대평해안 • 인문자원: 마을숲, 공덕비, 당, 우물, 지석묘, 봉화대 등 • 시설자원: 감산리 향토자료실, 대평분교, 펜션 등의 숙박시설 등 					
지역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중심부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안덕계곡 상록수림대가 있음 • 군산, 월라봉 및 경관이 수려한 대평해안 등이 권역내 분포 • 농업진흥청 전통 테마마을 지정(2005년 대평리) •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지정(2005년 감산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한국농촌공사(2006). 「감산·대평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

사례지역인 감산·대평지역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마을과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경험이 있는 곳이며,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목적과 잘 부합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3.2. 의식조사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 분석과제는 농촌지역에서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진흥에서 중요시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자료는 사전에 마을주민리더들을 중심으로 설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통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였으며, 응답자가 직접 응답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설문지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가 직접 응답을 기입방법을 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 패키지 SPSS 12.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용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등간척도일 경우 5점 리커트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설문지는 각 마을당 100부씩 총 200부를 사전에 설문에 대해 교육을 받은 조사자에 의해 배포되었고, 이중 감산 127부, 대평 66부, 등 총 193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88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확정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조사결과

3.3.1. 표본의 특성

전체응답자 188명의 성별은 남성 134명(71.3%), 여성 48명(25.5%)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별로는 대평 64명(33.3%), 감산 124명(66.7%)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39세 32명(17%), 40~49세 64명(34%), 50~59세 48명(25.6%), 60~69세 20명(10.6%), 70대 이상 12명(6.4%)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 표본의 특성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성별	남성	134	71.3	연령	30~39세	32	17.0
	여성	48	25.5		40~49세	64	34.0
	합계	188(6)	100(3.2)		50~59세	48	25.6
마을	대평	64	33.3		60~69세	20	10.6
	감산	124	66.7		70대 이상	12	6.4
	합계	188	100	합계	188(12)	100(6.4)	

3.3.2. 마을개발 사업에 대한 목표인식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의 목표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알고 있음’ 72명(38.3%), ‘보통’ 96명(51.1%), ‘알지 못함’ 18명(9.6%)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은 3.4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마을 발전 계획의 만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마을 발전 계획에 대한 만족하십니까?”라는 질의에서 ‘불만족함’ 24명(12.8%), ‘보통’ 84명(44.6%), ‘만족함’ 40명(21.3%)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은 3.07로 나타나 마을 발전 계획에 대한 만족여부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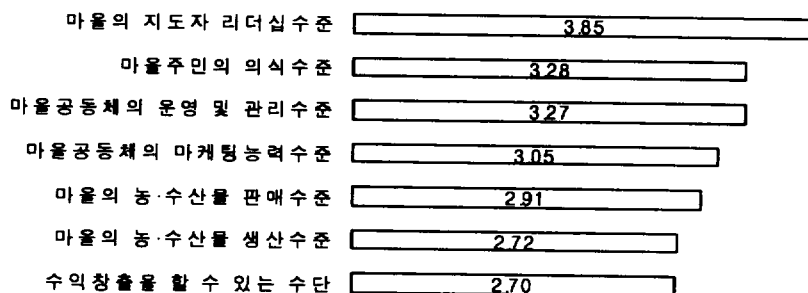
<표 5> 마을개발 사업에 대한 목표인식 및 만족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알지 못함	18	9.6	불만족함	24	12.8
보통	96	51.1	보통	84	44.7
알고 있음	72	38.3	만족함	40	21.3
계	188(2)	100(1.0)	계	188(40)	100(21.2)

3.3.3. 개발계획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마을 발전 계획의 성공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서 ‘마을의 지도자 리더십의 수준’이 가장 높은 평균값(3.85)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마을주민의 의식수준(3.28)’, ‘마을 공동체의 운영 및 관리수준(3.27)’, ‘마을 공동체의 마케팅 능력수준(3.05)’이 뒤를 이었다. ‘마을의 농·수산물 판매수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수단’, ‘마을공동체의 마케팅 능력수준’ 등은 평균값 이하로 마을 역량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3.11로 나타났다.

<그림 2> 개발계획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3.3.4. 농촌관광 개발 시 고려항목의 중요도

농촌관광 개발 시 고려항목으로 꼽은 11개 문항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제1 순위에서는 '통합브랜드개발프로그램(12.8%)', '지역리더역량강화(11.7%)', '영농클러스터개발(11.7%)' 등이 순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제2순위에서도 '통합 브랜드개발 프로그램(9.6%)', '영농클러스터개발(9.6%)'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권역명소화 방안(8.5%)', '마을개발협의회 지원(8.5%)' 등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3순위에서는 '광고 및 홍보(14.9%)' 와 '체험프로그램개발(14.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 농촌관광 개발 시 고려항목의 중요도(다중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	통합 브랜드개발 프로그램(12.8%)	통합 브랜드개발 프로그램(9.6%)	광고 및 홍보 (14.9%)
2	지역리더역량강화(11.7%)	영농클러스터개발(9.6%)	체험프로그램개발(14.9%)
3	영농클러스터개발(11.7%)	권역명소화 방안(8.5%)	영농클러스터개발(6.4%)
4	권역명소화 방안(6.4%)	마을개발협의회 지원(8.5%)	마을개발협의회 지원(6.4%)
5	축제활성화 지원(4.3%)	지역리더역량강화(7.4%)	통합브랜드개발 프로그램(5.3%)
6	광고 및 홍보 (4.3%)	광고 및 홍보 (7.4%)	권역명소화 방안(3.2%)
7	마을개발협의회 지원(4.3%)	축제활성화 지원(3.2%)	축제활성화 지원(2.1%)
8	전문가초정교육(3.2%)	전문가초정교육(3.2%)	지역리더역량강화(2.1%)
9	권역운영자 지원(2.1%)	권역운영자 지원(3.2%)	전문가초정교육(2.1%)
10	체험프로그램개발(2.1%)	체험프로그램개발(3.2%)	권역운영자 지원(1.1%)
11	권역맞춤형교육(1.1%)	권역맞춤형교육(3.2%)	권역맞춤형교육(1.1%)
계	188(66)	188(68)	188(76)

3.3.5.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항목의 중요도

농촌관광개발의 정책방향이 있어 시설위주의 하드웨어보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실질적 소득 창출방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필연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 데, 그 대상으로 관광측면(권역명소화)과 농업생산측면(영농클러스터)의 두 부문으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다.

먼저 “컨설팅 부분의 권역명소화 방안”에 대한 다중응답을 하게 한 질의에서 1순위에서는 ‘소득화 방안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권역 잠재자원 발굴 및 개발’,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개발’, ‘소득화 방안수립’, ‘주민과 함께하는 권역 잠재자원 발굴 및 개발’ 순이었으며, 3순위에서는 ‘권역이미지 개선방안’, ‘체험프로그램

개발자문', '권역브랜드화 방안마련'의 순이었다.

<표 7>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권역명소화시 고려항목의 중요도(다중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	소득화 방안수립(30.9%)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개발(20.2%)	권역이미지 개선 방안 마련(16%)
2	주민참여 권역잠재자원 발굴· 개발(11.7%)	소득화 방안수립(14.9%)	체험 프로그램 개발 자문(16%)
3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개발(8.5%)	주민참여 권역잠재자원 발굴· 개발(14.9%)	권역 브랜드화 방안 마련(14.9%)
4	체험 프로그램 개발 자문(7.4%)	권역 브랜드화 방안 마련(12.8%)	소득화 방안수립(11.7%)
5	권역 브랜드화 방안 마련(6.4%)	체험 프로그램 개발 자문(9.6%)	주민참여 권역잠재자원 발굴· 개발(10.6%)
6	권역이미지 개선 방안 마련(1.1%)	권역이미지 개선 방안 마련(7.4%)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개발(5.3%)
계	188(46)	188(38)	188(48)

한편, 영농클러스터 개발과 관련한 질의에서 1순위에서는 '판매활성화방안', '통합영농클러스터개발', '산관학 영농활성화 검토', '네트워크방안'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통합영농클러스터개발', '네트워크방안', '산관학 영농활성화 검토', '판매활성화방안'의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3순위에서는 '네트워크방안', '통합영농클러스터개발', '판매활성화방안', '산관학 영농활성화 검토'의 순이었다.

<표 8>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영농클러스터 개발 시 고려항목의 중요도(다중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	판매 활성화방안(45.7%)	통합영농 클러스터개발(27.7%)	네트워크방안(24.5%)
2	통합영농 클러스터 개발(14.9%)	네트워크방안(24.5%)	통합영농 클러스터개발(23.4%)
3	산·관·학 영농활성화 검토(8.5%)	산·관·학 영농활성화검토(17.0%)	판매 활성화방안(12.8%)
4	네트워크방안(6.4%)	판매 활성화방안(8.5%)	산·관·학 영농활성화 검토(11.7%)
계	188(46)	188(42)	188(52)

3.3.6. 홍보·마케팅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우선순위

"홍보·마케팅 부분의 축제활성화 개발"에 대한 질의에서 '안덕계곡 생태축제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축제개발', '축제기획지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축제활성화 개발은 '안덕계곡 생태축제 개발(53.2%)'이 제1순위, '축제 리플렛 제작(43.6%)'이 제2순위, 그리고 '축제 기획 지원(16%)'이 제3순위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보인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9> 홍보·마케팅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우선순위(다중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	안덕계곡 생태축제 개발(53.2%)	축제 리플렛 제작(43.6%)	축제 기획 지원(45.7%)
2	마늘축제 개발(14.9%)	축제 기획 지원(21.3%)	축제 리플렛 제작(25.5%)
3	축제 기획 지원(4.3%)	안덕계곡 생태축제 개발(10.6%)	안덕계곡 생태축제 개발(3.2%)
4	축제 리플렛 제작(2.1%)	마늘축제 개발(4.3%)	마늘축제 개발(1.1%)
계	188(48)	188(38)	188(46)

3.3.7. 주민의 참여 의지

마을종합개발의 과정에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참여해 본적 없음(58.8%)이 참여해 본적 있음(41.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농촌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참여할 생각과 참여의지”에 대한 질의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참여하여 동참하겠다는 참여 의사가 61.7%로 나타났다.

3.4. 주민조사 결과 시사점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38.3%, 전반적으로 마을 발전 계획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는 21.3%에 그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촌관광 시 고려항목으로 분류된 11항목에 대해 통합브랜드개발, 지역리더역량강화, 영농클러스터개발, 권역명소화 등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민이 농촌관광에 대한 기대가 관광적 측면보다는 산업경제적 측면을 보다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외부전문가 활용에 있어서도 이들이 구체적인 소득화방안이나 판매활성화방안이나 통합영농클러스터 개발에 기여하기 바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이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역주민들은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은 높은 참여의도를 갖고

있으나, 단기적인 수익창출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과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없다면, 추진 초반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며, 위험에 직면할 시 주민들의 갈등 심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농촌관광 활성화방안

4.1. 농촌관광 계획단계

4.1.1. 마을개발사업의 내용전환

현대의 농촌은 식량생산이라는 전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기보다 농업인과 외지인이 혼재하는 생활공간이며, 도시민의 여가공간이기도한 복합적 공간이다. 환경적 복합성이 증대된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단순한 관광여가공간으로 파악하면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할 여지가 많다. 즉, 숙박시설, 체험장 등 관광객을 겨냥한 소득사업 위주 개발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소수의 주민에 의한 다수 주민의 소외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농촌다운 경관과 부조화로 관광객의 관심을 얻지 못하거나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한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할 경우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마을개발사업의 내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지향점은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품격을 높이는 방향과 마을의 자원을 관리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사업의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1.2. 난개발 관리수단 확보

여가공간으로서 농촌의 농촌다움은 일차적으로 농촌경관의 보전과 관계된다. 농촌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은 주민이 아닌 외지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농촌경관 유지와 관련해 숙박시설 건축행위를 둘러싸고 주민과 외지인 사이에 마찰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시 이와 관련한 규율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즉, 마을조례에 '난개발 관리를 위한 원칙'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하거나 최근 정부의 '경관보전직불제도', '경관협약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규제일변도가 아니라 강원도 인제군 등의 몇몇 지자체의 경우처럼 지원책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신규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쳐 경관주택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

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4.1.3. 공동사업의 법인경영체를 중심으로 한 영농클러스터 구축

영농클러스터란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를 의미한다. 마을단위의 경우 이 같은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수익창출과 마을발전을 위해서는 마을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영농클러스터를 구축에 힘써야 한다.

현재 농촌관광은 대부분 농가부업형태의 수익사업 운영적 측면이 강하다. 이를 통해서는 사업자와의 장기적인 판매나 거래에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이 운영할 경우 수익사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신상품 개발, 세부담의 증가 등으로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마을 주민전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세액을 없게 하는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4.2. 개발·육성단계

4.2.1. 지역리더 역량강화

농촌관광으로 성공한 마을의 공통점으로 리더십을 갖춘 리더의 존재를 특징으로 한다. 이외에도 외부(행정기관, 자매결연단체)로부터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적극적 주민참여와 주민조직을 통한 역할분담, 적절한 보상기제의 작동 등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거론된다.

요컨대 마을이라는 기업의 대표로서 경영마인드를 갖춘 리더가 참여의 원리를 통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맡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의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마을단위 농촌관광의 성공 포인트라 할 수 있다.

4.2.2. 주민역할분담을 통한 관리운영방식의 현실적 모형과 정착

성공적 마을의 공통적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지도자, 내·외부 협력자, 주민조직 등의 역할분담과 상호보완 체제의 구축이다. 이는 지도자 즉, 리더에 부과된 과도한 역할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리더가 보다 창의적, 장기적으로 마을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리더 외 참여자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수행 만족감을 조장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의 LEADER 프로그램과 같이 마을사무장을 제도화시킬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4.2.3. 전문가 풀(Pool)의 구성

현재 농촌관광, 즉 마을개발에 있어 전문가의 개입은 대부분 '용역업자와 발주자의 관계'로 전략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의 유도를 통한 마을발전에 책임감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노령화된 농촌지역의 특성상 후계인력이나 주민역량은 대체로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용역업자와 발주자라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권역명소화나 장기적으로 영농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풀(pool)을 구성하여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전문 인력을 선발·육성하는 체계구축도 시급하다.

4.2.4. 공동마케팅을 통한 연계홍보

농촌관광은 주로 마을단위의 장소나 볼거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마을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내 관련성을 가진 다양한 관광자원 및 마을과 연계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즉 연계를 통한 공동마케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수요자는 연계된 프로그램을 소비하기 위해 일정을 계획할 것이며, 이것이 홍보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4.2.5.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농촌관광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과 리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촌관광도 하나의 사업인 만큼 방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함께 고도의 서비스 정신, 경영자로서의 창의력 및 경영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촌관광을 처음 시작하는 주민은 물론 현재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정신과 방문객을 맞이하는 태도, 경영자로서의 창의력과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훈련은 이를 담당하는 민간단체 또는 협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촌관광이 정착될 때까지 전문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농촌관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6.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의 핵심은 농촌다움의 강조

농촌관광도 경쟁체제로 진입한 시점에서 마을별 시설이나 체험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농촌다움의 강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농촌다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농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인정과 넉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V. 결 론

1980년대 중반부터 단순한 농업생산 공간으로서만 바라보던 전통적 농촌지역에 대한 시각은 생활공간, 여가공간 등의 다면적 공간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농업 또한 시장경제의 경쟁구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토대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농촌관광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농촌관광은 외국의 오랜 농촌전통에서 시작된 농촌개발형태이고, 제주의 경우 한국적 농촌여건과도 상이함으로 이를 무계획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한편, 농촌관광도 이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것은 다면적 기능을 가진 농촌이라는 공간이 팔리는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함을 의미한다. 즉, 이제 농촌관광도 하나의 비즈니스가 된 것이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제주농촌관광이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주마을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마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마을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전과는 다른 지역주민의 마인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만을 쫓는 근시안적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의 품격을 높이고 마을자원을 자원화하는 노력에 마을주민이 주체로 관련된 내·외부 협력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와 같은 외부지원보다는 마을의 주체로서 주민조직,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관련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발적 발전체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촌관광의 목표는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소득을 높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농촌의 자원, 문화 등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도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할 때 도시민의 참여와 신뢰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신겸(2007). 「농촌관광」. 대왕사.
- 김현호·한표환(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한표환(2005).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덕령·이혜천(2004). “농촌관광마을 개발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역할.”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3): 91-112.
- 박시현·송미령(2002). “농어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KREI·농특위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정섭(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농촌마을종합개발 워크숍 발표논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2005). “농촌관광 현실과 비전.” 2005 농업전망 발표대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야마자키 미쓰히로·오야마 요시히코·오오시마 준코(1997). 「녹색관광」. 일신사.
- 정기환(2001).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24(2): 139-162.
- 제주도(2002). 「녹색농촌체험관광」.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한국농촌공사(2006). 「감산·대평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
- 조규호(2006). “기업가정신이 농촌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29(2): 71-92.
- 최양부·이정환(1987). “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